

# 83年度 全日本小動物獸醫學會 紹介

趙 俊 行

서울特別市 獸醫師會 學術理事  
(清雲動物病院長)



학회에 참석했던 손진호원장 필자, 김정남 원장 (좌로부터)

이글은 금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국名古屋市公会堂에서 열린 全日本小動物 獣医学會에서 있었던 강연 등을 주로하여 간추린 것이다.

全日本小動物獣医学會는 日小獸 혹은 JSAVA라 부르기도 하며 이 學會는 每年 年例行事로 発表會를 가졌으나 今年부터 내용을 새롭게 하여 年次大會로 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 學會의 운영은 日本小動物獣醫師會가 주체가 된지 어언 13週年을 맞게 되었으며 최근 외국 특히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외국의 저명한 교수들의 지도를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

또 日小獸(JSAVA)는 世界小動物獣醫師會(WSAVA)에 가맹되어 있고 암스텔담, 바루세류나, 라스베가스 등의 世界大會에 日小獸의 많은 小動物開業醫가 참가하였으며 다음 第9回 世界大會은 1984年 9月 西獨의 함부르크에서 열기도 되어 있다. 그 다음해인 1985年 第10回 WSAVA大會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다. 小動物獣醫關係의 世界大會가 일본에서 열린 것은 지금까지 없었으므로 처음으로 일본국내에서 열리게 된 世界大會는 日本小動物獣醫師會의 존재를 국내외로 선보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의 年次大會가 2년후인 1985년도의 第10回 世界大會를 위해서 하나의 試金石이 되길 바라며 또 이번 年次大會가 小動物開業獸醫들의 새로운 동물진료의 양식이 되어 여러 선생들의 보다 나은 앞날을 기대하며 앞으로 있을 世界大會(WSAVA)를 위해 각국으로부터 모이는 동업개업의를 위해 상당한 경비와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니 이와같은 획기적인 大會를 成功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보다 큰 理解와 절대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는 日本小動物獣醫師會會長 高橋威彦의 인사가 있었다.

또 高橋會長의 人事말에 이어서 名古屋市獸

醫師會會長이며 日本動物保護管理協會 副會長과 現日本小動物獸醫師會 副會長인 堀場利幹 博士의 人事말은 「멀리 台灣 그리고 大韓民國에서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고마움을 표시하며 이번 年次大會가 全會員 3,000 余名中 1,000 余名이나 되는 많은 會員이 모든 것을 위선해서 全國으로 부터 모여주시어 이學會가 盛大하게 개최된 것은 日小獸任員으로 뿐만 아니라 이곳 名古屋市 獸醫師會으로서 대단히 고마운 일이며 돌이켜 보면 日小獸은 서기 1971년의 발족으로부터 학술뿐만 아니라 獸醫事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됨은 모두가 회원일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심없는 협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또 日小獸의 學術活動으로 每年 심포지움을 열고 있었으나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名種實習, 講習, 講演會, 研究會가 빈번하게 열리게 되어 이런 모임에 참가 하는 회원들은 모임이 겹쳐지면 어느 회합에 참가해야 될 것인지 그 회합의 취사선택에 간혹 곤란한 경우를 당하고 시간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우리 日小獸任員들은 일부회원이 제창한 선진美國의 AAHA의 年次大會와 같이 各種會合의 통일을 실현시켜 各 研究會와 의논하여 금년과 같은 충실한 年次大會를 열고 특히 市民公開심포지움을 개최하여 獸醫師와 住民간의 連帶意識을 강조하고 獸醫學의 중요성과 小動物獸醫師의 社會性을 나타낸것은 진실로 의욕적인 시도라 할수가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日小獸으로써도 年次大會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는 말과 끝으로 本 年次大會의 企画, 運營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原 崇 學術部長, 小竹事業部長을 위시하여 各分担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였다.

또 한분의 日本小動物獸醫師會 副會長인 小暮規夫 先生の「世界大會의 첫발 이라는」 연제로 강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日小獸

(旧全小協) 発足後 제 1 회 심포지움이 서기 1973년 3월에 熱海New Fujiya Hotel에서 創立三周年記念으로 개최한 것이 최초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 일이 되나 당시 學術担當理事의 한 사람이었던 나는 臨床獸醫學會에 발표된 실용성 높은 연계를 모아서 再演의 형식으로 10名の 演者에게 강연을 부탁하였었다.

지금 그때의 초록집을 열어보면 어떠한 내용도 10年後인 오늘에도 임상면에 이용되고 있는 것 뿐이며 이것중에는 完成된 手技로서 繼承되고 있는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간에는 가슴아픈 일도 적지 않았다. 「腹膜灌流法の 基礎와 臨床」이 發表되어 그後 T氏賞이라는 學術獎勵金을 내어주신 滝山岩親先生(名古屋市)과 「polip의 非觀血療法」의 石野 英先生(東京都)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이다.

그후 小動物臨床獸醫學會 開催 前日에 日小獸 심포지움이 每年 各地에서 開催되게 되어 會員各位의 支持를 얻어 해를 거듭함에 따라 그 내용도 충실해져가며 오늘에 이른것은 여러분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오늘의 年次大會는 本會로서도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3일간에 걸쳐 여러가지 방법으로 小動物臨床獸醫學의 檢討나 臨床技術의 繼續教育이 行하여진다. 本大會의 特徵은 海外로부터의 招待講演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Dr. Leighton에 의해서 강의되며 痲醉, 心電圖, 皮膚科 등의 研究會가 本會의 目的에 찬성하여 會期中에 定例會를 열어준일 또 本會의 分科會活動이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일, 그리고 一般國民을 위한 市民講座가 열려졌다는것 등은 年次大會라는 명칭에 가일층 더한 풍요로운 行事가 되고 있다.

1985년에는 WSAVA의 世界大會가 本會担當으로 日本에서 개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약 2년반이라는 기간내에 여러가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어서 大會開催의 어려움을 예상하나 小動物獸醫界의 發展을 위해선 한

번 해볼만한 대사업이며 이大會를 마침으로써 日本의 小動物獸醫師의 現況이 國際的으로 평가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행해지는 年次大會는 단 순한 國內의 年次大會가 아니고 世界大會에 임 하기전의 대회로 생각하시고 다음번 대회에 있 어서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일에 대해 회원 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보내 주시기를 희망합니 다.

금번 日小獸' 83年次大會 개최에는 처음으로 一般市民인 여러분과 같이 들을수 있는 市民公 開講座를 企画하였다.

우리들 獸醫師는 전부터 닦아진 專門分野에 정직하게 일해 왔습니다.

또한 小動物臨床獸醫師도 동물의 고통을 제거

하기 위한 질병치료에, 전염병의 예방치리에 힘 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번 年次大會에서도 이 방면에 힘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나날이 변 모하는 과학에 뒤지지 말아야 되겠으며 앞으로 도 더욱 노력해야 할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러나 우리 獸醫師一同은 自然科學者의 集團으 로서 항상 自己專門에만 치우치지 않기를 애쓰 고 있습니다.

언젠가 熊本縣八代·水保의 有機水銀에 中毒 은 많은 住民의 生命과 健康을 빼앗았고 지금 도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이런病은 일본의 國家的公害의 原点이며 이 水保病은 發生 수년전부터 고양이와 미쳐 날뛰다가 죽던지 또는 정상적인 歩行이 불가능한 증상을 나타내

#### '83年次大會 行事日程表

2月11日

11:00~12:30	3 F	第4集會室	任員會
12:30~13:00	大 홀		開會式
13:00~16:00	"	市民公開講座	"우리가 먹는 음식의 환경을 생각하자" 司會 人竹昭夫.
		講 演	"임신부의 안전한 생선먹는법" 笠井千次
		講 演	"姓産婦가 겁내는 毒素푸라스마症" 宮本 讓
		講 演	"알려지지 않은 食生活의 危險性" 竹内直一
		講 演	"좀먹는 環境汚染과 國民의 健康" 石川貞二
13:00~16:00	4 F	共 催	小動物皮膚科 研究會
		講 演	"貓의 皮膚病" 長谷川篤彦
16:00~19:00	3 F	第6集會室	鳩病分科會
		講 演	"레-스鳩의 疾病에 대한 根本的對策" 岩竹清臣
16:00~19:00	3 F	第5集會室	魚病分科會
		講 演	"觀賞魚의 疾病에 대해서" 竹腰正雄
16:00~19:30	4 F 홀		X線分科會 "Fillim보는 法" 山本 尚毅
16:30~19:30	大 홀	眼科分科會	
		講 演	"眼科基礎疾患·part 1 眼底所見" 朝倉宋一郎
		講 演	"遺傳的眼疾患·part 1 進行性網膜萎縮" 清水芳明
		講 演	"眼科手術의 實際·part 1 犬의 白內腸手術" 朝倉宋一郎
13:00~17:00	展示室	1,2,3,4.	"獸醫療機械器具, 藥品, 書籍等 展示"
12:00~16:00	2 F	第1集會室	"地方名産선물코너"
10:00~16:00	4 F	로 비 -	"會員用저-비스食堂"
10:00~14:00	1 F	로 비 -	"宿泊案内"
			"市民公開講座에 앞서서"
			"市民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獸醫師像을 향해. 八竹昭夫"

기도 하였다. 그리고 西日本을 중심으로 비참한 식품공해를 일으킨 가네미라이오일에 의한 PCB中毒事件도 7개월전 부터 다구오일 粕을 준 100万羽를 넘는 닭이 일시에 죽는 끔찍한事故가 發生되었습니다.

人類에 오는 異常前에 꼭 自然界에 있는 動物에게 異變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대사건이 나타날때 우리 獸醫師들이 참다운 獸醫學은 人類의 福祉를 위한 學門이라는 自覺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러한 비참한 大事故는 미연에 방지할수 있지않았나 생각된다. 人類의 環境도 動物의 環境도 같은 것이기에 평소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한편 귀여운 동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그 방법이 近視眼의이름은 그 目的效果가 반감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獸醫學 全般에 걸친 고려가 평소의 진료에서 볼수 있고 이러한 정점에는 獸醫臨床學이 있다.

우리들의 진료대상의 동물들을 家畜으로서 사람의 畜産食品이거나 pet로써 家族의 좋은 伴侶로써 人獸共通傳染病이나 衛生面으로부터 한 마디로 公衆衛生上 國民消費者인 여러분과 같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혼란일로서 空氣와 같은 존재로 國民은 勿論 消費者도 獸醫師도 전연 의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우리주위를 살펴보면 환경이나 음식이 심하게 오염이나 황폐되어 있는데 놀라게 된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들은 住民消費者의 側에 선 獸醫學의 活用을 아쉬워하게 된다. 이것은 즉 동물들에게나 生産者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市民公開講座의 기획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는 住民들의 행복을 위해 바다의 환경을 지킬것과 합성세계의 追放을 위해 그 제품의 有害性을 고소해서 亡國의 養殖漁業을 水産内部로 부터 警告하고 계신 石川貞二 先生과 消費者의 權利擁護 및 그 生活을 지키는 立場으로부터 環境·食品을 포함해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消費者 運動의 리-더인 竹内直一 先生을 招待하여 講座을 開設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 本會는 專門家의 입장에서 고양이의 특소푸라스마症의 免疫調査等 人獸共通傳染病對策에 대해 宮本讓 先生 그리고 全國의 規模로 고양이의 被毛의 水銀汚染調査를 실시하고 있어 公害病調査로서 世界的으로 인정받고 있는 笠井千次 先生으로부터 이러한 調査結果를 가지고 市民들의 입장에서 市民으로서 對應策을 설명할 것 입니다.

市民여러분도 활발한 發言參加等 市民公開講座를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協력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를 기회로 市民여러분과 獸醫師會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한덩어리가 되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매진하여 나가길 바랍니다.